

인용 구문 ‘다고 하는’과 ‘다는’의 특성*

김 선 효
(서울대학교)

Kim, Seon-Hyo. (2004). The characteristics of ‘*dako han-in*’ and ‘*dan-in*’ of the Korean quotation construction markers. *Language Research* 40(1), 161-176.

The two goals of this thesis are to ascertain syntactic and semantic differences between ‘*dako han-in*’ and ‘*dan-in*’ of the Korean quotation construction markers and to reveal that ‘*dan-in*’ can be a syntactic unit after grammaticalizational processes. First of all, we examined that ‘*dan-in*’ was abbreviated into ‘*dako han-in*’ synchronically. ‘*dako han-in*’ combines with the complement head noun, which have communicative meanings. Second, the semantic meaning of ‘*dako han-in*’ has an indirectness of the statements, ‘*dan-in*’ has probability of the statements. Third, ‘*dan-in*’ can be one of the adnominal endings in Korean, because ‘*dan-in*’ and adnominal ending ‘*(-i)n*’ have same syntactic phenomena.

Key words: quotation construction marker, grammaticalization, the complement head noun, adnominal ending, Korean syntax

1. 서 론

본고는 인용문의 ‘다고 하는’과 ‘고 하’가 탈락된 ‘다는’이 보문명사와의 상관성에서 차이점을 보이며, 문법화한 ‘다는’은 독립된 통사 단위가 될 수 있음을 밝히 고자 한다.

인용문은 피인용문과 상위문으로 구성되는데, 피인용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 하고자 하는 명제가 오고, 상위문에는 인용표지 ‘고’외¹⁾ 형식동사 ‘하’나 발화 동사가 나타난다. 이때 상위문의 ‘고 하’는 ‘고’나 ‘하’가 탈락하기도 하고, 둘 다 탈락하기도 하여 다른 문장 유형에 비해 문법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다고 하는’이 ‘고 하’가 탈락되어도 정보를 전달하는 명제의 의미나 문장 전체의

* 본 논문의 문제점을 세심하게 지적해 주신 익명의 세 분 선생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모든 잘못은 필자에게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1) ‘고’의 범주에 대한 논의는 부사격 조사(남기심·고영근, 1985, 1998, pp. 99-101; 임동훈, 1995, pp. 110-120, 박만규, 1993), 보문자(양인석, 1972; 남기심, 1973; 양동휘, 1976) 등 논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나, 필자는 아직 ‘고’의 문법 범주에 대한 관점이 명백히 서지 않아 본고에서는 임시적으로 인용표지라 한다.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인용문의 종결어미에 ‘고 하-’가 탈락된 유형을 주로 연구하였다면, 본고에서는 ‘-다고 하는’과 ‘-다는’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다고 하는’과 ‘고 하-’가 탈락된 ‘-다는’은 의미적으로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문장에서는 두 유형이 환원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공시적으로 왜 두 유형이 환원되지 못하는지, 비환원적 융합형 ‘-다는’의 문법 범주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2장에서는 인용 구문에 대한 선행연구를 간단히 검토하고, 3장에서는 통시적 관점에서 ‘-다고 하는’을 고찰하며, 4장에서는 공시적 관점에서 ‘-다고 하는’과 ‘-다는’ 뒤에 오는 보문명사와의 상관성을, 5장에서는 ‘-다고 하는’과 ‘-다는’의 통사-의미적 차이점을 제시하고, 6장에서는 비환원적 융합형인 ‘-다는’의 문법화 과정과 문법범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인용 구문에 대한 논의는 남기심(1973)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송진오(1978), 이현희(1986, 1994), 신선경(1986), 장경희(1987), 안명철(1990), 이승재(1992), 이필영(1993/1995a, 1995b), 이지양(1996), 석주연(2002) 등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하였다. 이 중 이현희(1986), 이승재(1992), 석주연(2002) 등은 중세국어 인용문의 구조적 특성과 통시적 과정을 제시하였고, 남기심(1973), 송진오(1978), 안명철(1990), 임동훈(1995), 이필영(1993, 1995a, 1995b) 등은 공시적인 관점에서 인용문을 연구하였다.

인용문의 초기 연구에서는 ‘-다고 하는’과 ‘-다는’이 단순히 축약 내지 융합된 현상이므로 두 유형이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공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장들을 살펴보면 이 두 유형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예들이 발견된다.²⁾ 이런 현상을 발견한 이필영(1993, 1995b), 이지양(1996)은 ‘-다고 하는’과 ‘-다는’의 차이점을 융합 현상으로 설명하고, 융합 현상에는 원래 형태로 환원이 가능한 환원적 유형과 환원이 불가능한 비환원적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다는’을 환원 가능성에 따라 구분하였지만 문법화한 유형의 문법 범주 설정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임동훈(1995)은 ‘-다는’을 ‘-다고 하는’의 ‘고 하-’가 탈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는’과 ‘-다고 하는’의 기원은 같으나 각각 다른 구문에서 발전한 것이라 하였다. 즉 ‘-다는’의 ‘는’은 속격조사 ‘스’이 발전한 형태이며, ‘-다고 하는’의 ‘고’는 ‘흐야’가 문법화한 부사격 조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필영(1995b)은 ‘-다는’과 ‘-다고 하는’이 처음부터 다른 구문에서 발전한 것으로, ‘-다는’은 ‘-다고 하는’에서 ‘고

2) 본고에서는 공시적인 언어 현상을 참고하기 위하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전자텍스트연구소 용례 추출기와 KAIST 콘코든스 프로그램에서 추출한 용례를 참고하였다.

하’가 탈락된 것이 아니라, ‘다 하는’의 ‘하’가 탈락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다고 하는’과 ‘다는’의 의미적 차이점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 특성이 무엇이며, 그 의미적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본고는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다고 하는’과 ‘다는’의 제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 ‘다고 하는’에 대한 통시적 고찰

인용표지 ‘고’가 국어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이다.³⁾ 중세 국어의 인용문은 ‘NP₁이 S 하야 니르다’와 ‘NP₁이 S 니르다’의 구조를 가지는데, 이것이 보문명사를 수식하는 구문일 때는 ‘NP₁이 S 하야 니르논 NP₂’와 ‘NP₁이 S 하논 NP₂’로 나타난다. 이때 ‘하야’는 부동사 ‘하’(爲)의 활용형으로, ‘하야’가 문법화하여 ‘하고’가 되고, 다시 ‘하고’의 ‘하’가 탈락되어 ‘고’만 근대 국어에서 나타난 것이다.⁴⁾

(1) 가. 須達이 病하엿거늘 부테 가아보시고 阿那含을 得하리라 니르시니라(석보상절 6:44b)

나. 부테 니르샤디 자본 이리 無常하야 므몰 몰 미들거시니 네 목수물 미더
즈랄 時節을 기드리는다 하시고(석보상절 6:11b)

(1가)는 중세 국어의 직접 인용문으로 석가모니가 수달에게 말한 것이며, (1나)는 석가모니가 설법하던 중, 나운이 궁금히 여긴 것에 대해 답변한 부분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1)과 같이 직접 인용문임을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문맥을 통하지 않고서는 대개 직접 인용문과 간접 인용문을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것은 직접 인용문에서 간접 인용문으로 전환할 때 인칭어, 시칭어, 지시어, 선어말어미 ‘오’ 등의 전이가 상당히 수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⁵⁾

중세 국어의 인용문이 보문명사를 수식하는 구문으로 실현될 때에는 상위문의 동사가 직접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개 ‘하다’의 활용형 ‘하논’으로 실현된다.

(2) 가. 沙彌는 새 出家하 사르미니 世間엿 뜰들 그치고 慈悲人 헝더글 하다 하
논 쁘디니(석보상절 6:2ab)

나. 天人師는 하늘히며 사르미 스스이시다 하논 마리라(석보상절 9:3b)

(2)에서도 관형사절의 구성을 가지는 경우는 발화 동사보다 형식동사 ‘하’가 사

3) 이필영(1995b:1) 참조.

4) 안병희(1967, pp. 256-256), 이현희(1994, pp. 68-69), 임동훈(1995, pp. 110-124) 참조.

5) 이필영(1995a, p. 23), 석주연(2002, pp. 1-10) 참조.

용되었다. 즉 발화 동사 ‘니르-’가 나타나지 않고 ‘ㅎ-’가 사용된 ‘ㅎ논’이 나타난다. ‘S ㅎ논 NP’이 점차적으로 ‘S 하는 NP’ 내지 ‘S고 하는 NP’으로 발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고’는 앞에서 설명한 부동사의 활용형 ‘ㅎ야’가 ‘고’로 발전한 것이며, ‘하는’은 형식동사 ‘ㅎ논’에서 발전하는 것이다. 문제는 ‘-다는’ 구문이 ‘-다고 하는’에서 ‘고 하’가 탈락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유형에서 발전한 것인지 하는 것이다. 임동훈(1995, pp. 110-24)은 ‘S는 NP’와 ‘S고 하는 NP’가 기원적으로는 모두 ‘NP (ㅎ야) V’에서 출발하였지만, 그 통시적 형성 과정은 동일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공시적으로 ‘-다는’이 ‘-다고 하는’에서 ‘고 하’가 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 하’가 결합된 구문은 ‘NP이 S ㅎ논 말→S ㅎ논 말, S 하는 말→S고 하는 말’의 발달 단계를 거쳐서 형성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비록 ‘고’의 원형인 ‘ㅎ야’가 피인용문과 인용동사 사이에 수의적으로 개재되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 ‘고’가 개재되는 이 과정은 수궁하기 힘들고, ‘S고 하는 NP’ 구문이 ‘NP이 S고 V’에 이끌리어 ‘S고 하는 NP’로 변화하였다는 것은 추정일 뿐 정확한 자료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⁶⁾

중세국어에서 나타난 ‘ㅎ’의 생략 현상을 살펴보면 ‘-다는’은 ‘-다고 하는’에서 ‘고 하’가 생략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 ‘ㅎ-’의 생략 현상은 소망 표현이나 의도 표현에서 16세기 이래 산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⁷⁾ 이러한 현상은 단어 경계뿐 아니라 절 경계까지 확장되었다. 처음에는 ‘아니 ㅎ느니라’의 표현이 ‘아닛느니라’로, ‘고져 ㅎ노라’나 ‘려 ㅎ노라’ 표현이 ‘고졌노라’나 ‘렸노라’로 ‘ㅎ-’가 생략되는 것이, 피인용문과 상위문 동사 사이의 절 경계인 ‘고 ㅎ-’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3) 가. 불 하 업스니 쓰던 거시나 얻고전노라(청주김씨언간 159)

- 나. 낭성님이 무당 갖더니 우리게로 돈너 가련노라 ㅎ니(병자일기 1639. 1. 9.)
 다. 올 年事를 보외여 始役狀啓를 하렸노라 ㅎ여 계시던 거시 올너니(강화 하 2)
 라. 거히를 쓰련는가(백석 교린 3:9) (이현희 1994, p. 78 재인용)

(3가)와 (3나)는 16세기 이래 ‘고’의 탈락이 산발적으로 나타난 것이며, (3다)와 (3라)는 19세기에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ㅎ려(고) ㅎ느-’가 ‘ㅎ렸느-’나 ‘ㅎ련느-’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소망 표현이나 의도 표현에서 ‘ㅎ-’가 생략되기 시작한 것이 인용 구문에도 적용되었던 것이다.

문제는 형식동사 ‘ㅎ-’는 16세기 이후부터 발음의 경제성으로 인해 생략되었지만,

6) ‘-다고 하는’과 ‘-다는’의 기원이 동일하지 않다고 본 것은 이필영(1995b)에서도 발견된다. 간접인용문의 ‘-다고’가 현재와 같이 굳어진 것은 19세기 이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다코’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공시적으로도 인용동사가 인지동사류이거나 후행절에 대한 접속의 기능을 가질 때는 ‘고’가 생략되지 못하는 현상이 있으므로 이 두 유형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7) 이현희(1994, pp. 78-9) 참조.

18세기 이후에 활발한 현상을 보이는 ‘고’가 생략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고’의 재구형인 ‘하야’에서 찾을 수 있다. ‘하야’는 중세 국어의 인용문에서 수의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하야’가 피인용문과 인용동사 사이에 개재되는 것이 필수적인 현상이 아니었으므로 ‘고’가 현대 국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기는 어렵다. 인용표지 ‘고’는 근대 국어에 나타났지만 그 시대를 전후하여 ‘고’가 인용문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4) 가. 나가라 직축하니 스방의셔 통인 와서(일동장유가 1:19)

나. 덕을 싸고 경을 기르므로 가히 일커러 니르리라 혼즉(조야첨재 29a)

다. 아직 두임(斗任)의 스심으로 보아 쳐결호오미 맛당하니이다 우상의 의논더로 시형하라 호오시다 (조야회통 17a)

라. 가이사 외에는 우리가 님금이 업늑이다 하니(요한복음 19:16)

(4)은 모두 인용 구문이지만 인용표지 ‘고’가 사용되지 않은 문장이다. (4가)의 <일동장유가>에서도 ‘고’가 사용되지 않은 문장이 상당히 있고, (4나)와 (4다)의 18세기 문헌으로 추정되는 <조야첨재>나 <조야회통>, (4라)의 1900년의 신약전서에서도 ‘고’가 사용되지 않은 문장이 발견된다. (4)의 이러한 예들은 인용표지 ‘고’가 사용 가능한 환경이지만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즉 근대국어의 인용표지 ‘고’의 수의적 사용이 현대 국어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본다. 인용표지 ‘고’는 인용문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필수적 요소가 아닌 수의적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고’의 수의적 성격으로 인하여 현대 인용문에서 ‘고’가 쉽게 생략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는’은 ‘다고 하는’에서 ‘고 하’가 탈락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고 하’의 탈락 현상은 인용표지 ‘고’의 수의적 속성과, 소망표현이나 의도표현에서 동사 ‘하-’의 탈락현상이 단어 경계뿐 아니라 절 경계에까지 확대되면서 나타난 것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는’의 이러한 현상은 ‘고 하’의 탈락된 통사론적 단위에서 형태론적 단위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현대 국어에 오면서 ‘다는’은 문법화 과정을 거쳐 하나의 형태소 자격을 가지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다는’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 ‘다고 하는’과 보문명사와의 상관성

현대국어의 ‘다고 하는’은 ‘다는’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다는’이 ‘다고 하는’으로 환원 가능하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두 유형이 의미적으로 동일하다고 추정하기 쉽다.

(5) 가. 효실은 차마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기가 쑥스러웠던 것이다.

나. 효실은 차마 사랑에 빠졌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기가 쑥스러웠던 것이다.

(6) 가. 루브르 박물관으로 가면 다빈치의 <모나리자> 원본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소문이 일행들 사이에 짝악 퍼졌다.

나. 루브르 박물관으로 가면 다빈치의 <모나리자> 원본을 볼 수 있다는 소문이 일행들 사이에 짝악 퍼졌다.

(5)와 (6)는 ‘-다고 하는’과 ‘-다는’이 서로 교체가 가능하며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5가)와 (6가)에서 ‘-고 하’를 생략하면 각각 (5나)와 (6나)가 되며, 두 문장의 의미적 차이는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두 유형이 항상 이러한 환원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7) 가. 신 여사는 의심스럽다는 눈초리로 딸을 쏘아보았다.

나. *신 여사는 의심스럽다고 하는 눈초리로 딸을 쏘아보았다.

(8) 가. 아빠도 안 됐다는 기색이었다.

나. *아빠도 안 됐다고 하는 기색이었다.

(9) 가. 자신이 지금 뛰고 있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았다.

나. ?*자신이 지금 뛰고 있다고 하는 느낌조차 들지 않았다.

(7가)와 (8가)는 각각 (7나)와 (8나)로 환원하면 문장 수용력이 떨어지며, (9가)도 (9나)로 환원하면 비문에 근접한다. 비문의 정도성은 다르지만 (7)~(9)의 문장들은 ‘-다는’에서 ‘-다고 하는’으로 환원하기 곤란하다.⁸⁾

그렇다면 공시적 관점에서 (5)와 (6)에서는 환원이 가능한 것이 왜 (7)~(9)에서는 환원이 불가능하거나 어색한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다고 하는’이 수식하는 보문명사의 성격이다. 즉 환원성과 비환원성의 가장 큰 차이는

8) 이필영(1995a, pp. 121-23)은 ‘하’를 ‘하’ 단축형과 ‘하’ 탈락형으로 구분하였다. ‘하’ 단축형은 환원이 가능한 통사론적 구성이고, ‘하’ 탈락형은 환원이 불가능한 형태론적 구성이다. 그러나 이필영(1995a)의 논의 방법은 종결어미나 연결어미에서 나타나는 문법화 현상에는 적합하지만, (7)~(9)의 문장 구조에서는 적합하지가 않다.

(1) 가. 철수도 내일 비가 {온다더라/온대더라}

나. 비가 {온다면/¹온대면} 안 갈 수도 있다.

(2) 가. 내일 비가 {온다면서/²온대면서}

나. 내일 비가 {온단다/*²온덴다}

(1가), (1나), (2가)는 ‘하’ 단축형이며, (2나)는 ‘하’ 탈락형인데, 그것은 (2나)가 ‘하’ 단축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S-다고 하는’ 관형사절과 보문명사의 의미적 상관성에 있다는 것이다. 원래 ‘다고 하는’은 인용의 한 유형으로서, 발화행위의 산물인 구체적 발화를 피전달부로 삼는 전달 행위이다.⁹⁾ 화자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발화 내용을 청자에게 객관적 관점에서 전달하는 한 유형인 것이다. 이러한 유형이 문법화 단계를 거치면서 완전한 인용의 자격을 상실하고 국어의 어미의 한 유형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즉 ‘다는’의 문법 범주의 속성이 변한 것이다.¹⁰⁾ 이렇게 ‘다는’의 범주가 변했다고 입증하는 것 중의 하나가 ‘다고 하는’ 구문이 요구하는 보문명사와 ‘다는’ 구문이 요구하는 보문명사가 다르다는 것이다. 공시적 관점에서 두 구문 뒤에 오는 보문명사가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

(5나)와 (6나)의 ‘다는’이 각각 (5가)와 (6나)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이때 사용된 보문명사가 (5)의 ‘말’과 (6)의 ‘소문’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보문명사는 모두 관형사절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보문명사로서, 그 내포문은 화자가 제삼자로부터 들은 내용이다. 이와 동일한 현상을 보이는 것이 (10)와 (11)의 경우이다.

(10) 가. 옆집 할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우리들은 갑자기 숙연해졌다.

나. 옆집 할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에 우리들은 갑자기 숙연해졌다.

(11) 가.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한다는 충고를 자주 들었다.

나.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한다고 하는 충고를 자주 들었다.

보문명사가 (10)의 ‘소식’과 (11)의 ‘충고’의 경우에는 ‘다는’을 ‘다고 하는’으로 환원할 수 있다. ‘고 하-’가 들어가면 인용성이 강조되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 것은 있지만, 의미가 변하거나 비문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환원이 가능한 유형들의 보문명사들은 공통적으로 완형보문을 요구하는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명사들은 의사소통적 명사이거나 정신활동적 명사가 많다(송진오, 1978). 보문명사 중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의사소통적 의미 기능을 가진 것을 우리는 ‘언어수행성 명사’라 칭한다. 다시 말해 언어수행성 명사는 화자가 피인용문의 명제를 청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다.

그렇다면 보문명사 중에서 어떤 명사가 ‘다는’에서 ‘다고 하는’으로 환원이 가능한지 살펴보자. 국어의 명사 중에서 보문을 요구하는 명사에 대한 연구는 남기심(1973, 1996, p. 165)에서 시작되었는데, 여기서 명사를 분류한 것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¹⁾

9) 신선경(1986, p. 95) 참조.

10) ‘다는’의 문법 범주와 의미적 특성에 대해서는 §5과 §6 참조.

11) 다음은 남기심(1973) 이후 보문명사를 분류한 연구이다.

- (12) 가. [-보문]: 책, 나무, 사람, 차
나. [+완보]

- ① 약점, 사실, 욕심, 이점, 결심, 목적, 흔적
② 소문, 낭설, 소식, 연락, 질문, 불안, 애기, 보도, 헛소문, 보고, 오보, 정보, 문제, 독촉, 명령, 의미, 전언, 농담, 고백, 눈짓, 이론, 말, 설명, 믿음, 이유, 인상

- 다. [-완보]: 가능성, 용기, 불상사, 사건, 기억, 경험, 일, 모양, 눈치, 줄, 바, 수, 데, 리

- 라. [±완보]

- ① 죄목, 혐의, 의심, 전력(前歷)
② 것

(12나)와 (12라)와 같은 명사는 완형보문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피인용문에 대한 사실성을 전제로 한다. 이들 명사는 화자가 청자에게 피인용문의 명제를 전달하는 것으로 언어수행성을 가진다. 이것은 인용문의 보문명사가 언어수행성을 가지면 완형보문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12다) 중 ‘불상사, 사건, 기억, 경험, 일’ 등도 완형보문 구조를 취할 수 있다.

(10)의 ‘소식’이나 (11)의 ‘충고’와 같은 의사소통과 관련되는 명사는 언어수행성이 높은 명사로 (12나②)도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들은 ‘-다고 하는’과 ‘-다는’의 환원성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러나 정신활동적 명사는 언어수행적 명사에 비해 그 환원성이 그리 자연스럽지 못하다.

- (13) 가. 죽은 아버지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 [?]죽은 아버지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1) 송진오(1978)

- a. 직접 보문명사: 소리, 경치, 말, 냄새, 맛, 기분 등.
b. 간접 보문명사
① 의사소통 명사: 전보, 전호, 편지, 약속, 명령, 요구, 충고, 보도, 답, 고백 등.
② 정신활동 명사: 예상, 가정, 생각, 사고, 예감, 의견, 희망, 주장, 결론, 기대, 판단.

(2) 이익섭·임홍빈(1983)

- a. 직접 보문명사: 경우, 가능성, 까닭, 줄, 수, 바, 리, 듯, 양, 척, 체, 만, 법, 성 등
b. 간접 보문명사: 소문, 소식, 말, 주장, 단언, 약속, 보고, 보도, 명령, 요청, 고백, 낭설, 생각, 믿음, 죄목, 느낌, 견해, 설(說), 이론 등.
c. 직·간접 보문명사: 사실, 약점, 것.

(3) 강범모(1983)

- a. ‘-는’: 행위, 용기, 눈치, 모양, 소리.
b. ‘-고 하는’: 소문, 명제, 보도, 농담, 연락, 믿음, 의견, 명령, 제안, 질문, 예상, 희망, 공포, 불안감 등.
c. ‘-는’, ‘-고 하는’: 사실, 진실, 약점, 잘못, 불상사, 죄, 전력, 사건, 소식.

(14) 가. 나는 그녀가 몸이 약해 자주 쓰러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나는 그녀가 몸이 약해 자주 쓰러진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13나)와 (14나)의 문장 수용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이들이 각각 (13가)와 (14가)와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언어수행적 명사는 ‘다고 하는’과 ‘다는’의 호환성이 매우 자연스럽지만, 정신활동적 명사는 환원성 정도가 문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13가)는 (13나)로 환원되면,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믿음의 주체인 공범주 주어가 피인용문을 인용문의 객체에게 전달하는 인용문 고유 속성이 모호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정신활동적 명사는 화자와 청자가 동일인물이기 때문이다. 화자와 청자가 동일한 지시 대상인 경우에는 인용문의 고유 속성이 불분명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모호한 현상은 (14)와 같은 문장에서도 드러난다. 물론 어떤 국어 화자들은 (14가)에서 (14나)로 환원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한다. 그런 경우에는 인용동사 ‘하다’를 발화동사가 아닌 형식동사로만 해석하기 때문이다. ‘다고 하는’이 ‘다는’보다 훨씬 더 강한 전달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수행적 명사가 사용된 (10)이나 (11)과 같은 구문에서 인용동사 ‘하다’는 발화동사로도 해석 가능하다. 즉 언어수행적 명사가 정신활동적 명사에 비해 그 전달성이 강하다. 그것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용동사 ‘하다’는 발화동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사건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보문명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5) 가. 어느 정도 돈은 있지만 언니가 무척 외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 [?]어느 정도 돈은 있지만 언니가 무척 외로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16) 가. 지금 결코 다희가 명랑하지 않다는 것을.

나. ^{??}지금 결코 다희가 명랑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15)의 ‘사실’이나 (16)의 ‘것’과 같은 명사는 환원이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지만, 그 환원성이 자연스럽지는 않다. (15가)의 ‘다는’은 언니가 무척 외로워하고 있는 사건을 직접적인 사태로 해석하지만, (15나)의 ‘다고 하는’은 언니가 무척 외로워하고 있는 사건을 간접적인 사태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은 (16)에도 적용된다. 의존명사 ‘것’은 의미적인 추상성으로 인하여 (16나)처럼 그 수용성이 더욱 희박해진다. 이것은 ‘다는’이 점점 문법화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다는’이 문법화한다면, ‘다고 하는’에서 ‘고 하’가 생략된 통사론적 구성이 아니라 문법화한 하나의 형태론적 구성이 되는 것이다.

‘다는’과 ‘다고 하는’의 환원성은 보문명사의 의미자질과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는’이 ‘다고 하는’으로 환원이 자연스러운 것은 언어수행적 보문명사가 사용되는 경우이며, 그 외 정신활동적 보문명사나 사태를 나타내는 보문명사가 사용된 경우는 환원성이 약함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환원이 자연스러운 언어수행적 보문

명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7) 언어수행적 명사¹²⁾

소문, 낭설, 질문, 보도, 헛소문, 보고, 오보, 정보, 독촉, 명령, 전언, 농담, 고백, 말, 설명, 연락, 얘기, 전보, 전화, 편지, 약속, 요구, 충고, 답, 요청, 견해 등.

(17)의 언어수행적 명사는 다른 보문명사와 달리 인용문 구조에서 ‘-다는’이 ‘-다고 하는’으로 환원이 자연스럽다.¹³⁾

5. ‘-다고 하는’과 ‘-다는’의 통사·의미적 차이

5.1. ‘-다고 하는’과 ‘-다는’의 통사적 차이

인용문의 융합형에 대한 통사적 논의는 지금까지 ‘고 하’가 종결어미에 실현된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이필영(1995a, p. 123)은 내포절과 상위문 동사에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가 환원형과 비환원형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제시하였고, 이지양(1996, p. 195)은 인칭이나 상위문 동사의 활용 등에 따라 구별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환원적 융합형과 비환원적 융합형의 통사적 차이를 논의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다고 하는’과 ‘-다는’이 선어말어미 결합 양상과 인칭 제약에서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먼저 환원적 융합형 ‘-단다’와 비환원적 융합형 ‘-단다’의 통사적 제약 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8) 가. 그분은 내일 가신단(덴)다.
 나. {나, 그}는 내일 간단(덴)다.
 다. {나, 그}는 어제 갔단(덴)다.
 라. {나, 그}는 내일 가겠단(덴)다.
 마. {나, 그}는 어제 갔더란(덴)다.

12) 보문명사에 대한 자료는 김선호(2002, p. 149) 참조.

13) 물론 관점에 따라 문장의 수용성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언어수행적 명사가 사용되어도 그 환원성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도 있다.

(1) 가. 그는 명회가 결혼했다는 말을 하였다.

나. *그는 명회가 결혼했다고 하는 말을 하였다. (임동훈, 1995, p. 120)

- (19) 가. 그분은 내일 오신단다.
 나. {나, 그}는 내일 간단다.
 다. {나, 그}는 어제 갔단다.
 라. *{나, 그}는 내일 가겠단다.
 마. *{나, 그}는 어제 갔더란다.

(18)의 ‘-단다’는 환원형으로 피인용문의 선어말어미의 결합과 인칭에 제약을 받지 않는 반면, (19)의 ‘-단다’는 비환원형으로 피인용문에 ‘-겠-’이나 ‘-더-’가 허용되지 않는다. 비환원적 ‘-단다’는 인용동사 ‘하-’가 실질동사의 기능을 상실하고 형식동사로만 기능하여, ‘하-’가 탈락한 경우에는 선행어미와 결합하여 어미구조체를 형성함으로써 더 이상 상위문의 어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고, 선행절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서법적 기능만 가능하게 된다.¹⁴⁾ 이와 같이 ‘-단다’는 ‘-다고 한다’로 환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제 선어말어미나 인칭에 제약을 받지 않지만, (19)와 같이 ‘-단다’가 비환원적 융합형인 경우에는 일부 시제 선어말어미와 인칭에 제약을 받는다.

그렇다면 통사론적 구성‘다고 하는’과 형태론적 구성 ‘다는’은 어떤 통사적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 (20) 가. {내, 네, 그}가 어제 다쳤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
 나. {내, 네, 그}가 내일 떠난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
 다. *{내, 네, 그}가 내일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소식을 들었다.
 라. {내, 네, 그}가 어제 집으로 돌아가더라는 소식을 들었다.

- (21) 가. {나, 너, 그}는 의심스럽다는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나. {나, 너, 그}는 의심스러웠다는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다. *{나, 너, 그}는 의심스럽겠다는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라. *{나, 너, 그}는 의심스럽더라는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20)의 ‘-다고 하는’은 시제나 인칭에 큰 제약이 없다. 다만 (20다)에서 선어말어미 ‘-겠-’과 1인칭 대명사가 상충하는데, 그것은 선어말어미 ‘-겠-’의 주어가 1인칭 대명사이면 ‘-겠-’이 추정이나 예상의 의미가 아닌 의지의 의미로 해석되고, 시제 선어말어미가 아닌 서법 범주의 개념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¹⁵⁾ 이것은 ‘-겠-’이 2인칭 대명사

14) (18)과 (19)의 ‘-단다’에 대한 논의는 이필영(1993, 1995a, p. 124, pp. 132-133, p. 143)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이 외 ‘-단다’에 대한 개별적 연구는 박나리(1998) 참조.

15) 물론 ‘-겠-’이 서법범주인지 양태범주인지에 대한 관점은 논자마다 다르다. 여기서는 Lyons(1995)의 개념을 수용하여, 서법은 서술어의 굴절에 의해 실현되는 문법범주이며, 양태는 의미범주로서 진리양태, 인식양태, 당위양태로 구분한다.

나 3인칭 대명사와도 결합에 제약을 보이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짚’의 추정 내지 의지의 의미는 피인용문의 주어에 관할되는 것이 아니라 상위문의 주어에 관할되기 때문에 선어말어미 ‘짚’과 인칭이 결합상 제약을 가진다. 그러나 (21)의 형태론적 구성 ‘-다는’은 비환원적 융합형 ‘-단다’와 동일한 제약 현상을 보인다. (21다)와 (21라)와 같이 ‘-다는’은 선어말어미 ‘짚’과 ‘더’와 결합하지 못하고, 이들은 모든 인칭과의 결합에 제약을 보였다. 이것은 ‘짚’이나 ‘더’가 시제 선어말어미 ‘었’이나 ‘(으)ㄴ’과 다른 선어말어미 기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말한다.

보문 구조에서의 환원형과 비환원형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통사적 기제로는 접속문에서의 작용역이다.

(22) 가. 가이드는 나에게 모나리자를 닮았다와 눈빛이 예쁘다고 하는 말을 쉽게 했다.

나. *신여사는 나를 사랑스럽다와 의심스럽다는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22가)는 ‘고 하’ 구문에서 대등접속문이 피인용문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보문명사의 작용역이 문장전체에 적용된다. 가이드가 나에게 한 말은 ‘모나리자를 닮았다’와 ‘눈빛이 예쁘다’는 것이다. 즉 언어수행적 명사가 사용되면 인용문이 피인용문 전체에 대해 작용역을 가진다. 그러나 (22나)와 같이 보문명사가 언어수행성을 가지지 않으면 ‘-다는’이 ‘사랑스럽다’와 ‘의심스럽다’에 대해 작용역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명사 ‘눈초리’가 접속문의 선행문까지 영향권을 가진다고 보기에겐 문장의 수용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러므로 (22나)와 같은 구문에서는 ‘-다’와 ‘-는’을 각각 하나의 형태소로 처리하는 것보다 ‘-다는’을 하나의 형태소로 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비환원형의 구조에서는 ‘-다는’이 하나의 형태소가 되므로 접속문 구조에서의 영향권은 접속문 전체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행절이나 후행절 중 하나에만 적용된다.

5.2. ‘다고 하는’과 ‘-다는’의 의미적 차이

‘다고 하는’은 원래 인용문에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화자가 명제의 사태를 제삼자의 중립적 위치에서 청자에게 전달하는 간접성을 가진다. 이러한 간접성은 ‘고 하’가 탈락된 ‘-다는’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비환원적 ‘-다는’은 원형의 ‘다고 하는’이 가지는 간접성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23) 가. 효실은 차마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기가 쑥스러웠던 것이다.

나. 다희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활짝 웃으며 두 팔을 앞으로 뻗었다.

(23가)는 인용표지 ‘고’와 동사 ‘하’가 사용됨으로써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는 명

제에 대해 중립적 관점을 가지지만, (23나)는 주어가 사태에 대해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다. 즉 ‘다고 하는’은 화자가 중립적 위치에서 명제를 전달하는 간접성의 의미를 가지는 반면, 비환원적인 ‘다는’은 주어진 사태나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인식 상태의 의미를 가진다.

문법화한 ‘다는’은 이제 더 이상 통사론적 구성이 아니므로, 명제의 사태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의미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형태론적 단위인 ‘다는’의 의미 기능을 좀더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통사적 기능을 담당하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24) 가. 의심스럽다는 눈초리
나. 의심스러운 눈초리

(24)의 의미적 차이는 인용문과 비인용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용문은 화자가 제삼자로부터 들은 사실을 청자에게 재전달하는 방식이므로 명제에 대한 화자의 입장은 중립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인용문인 다른 문장들은 선어말어미나 종결어미를 통해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인식 상태를 표현한다. 특히 국어는 선어말어미나 종결어미가 서법이나 양태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관형사형 어미도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인식 양상을 표현한다.¹⁶⁾

그렇다면 형태론적 구성인 ‘다는’과 ‘ㄴ’이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인식 상태의 정도성이 어떻게 다른가. ‘다는’은 어떤 명제나 현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양태가 확실성(certainty)을 갖지 못하고 개연성(probability)을 가지는 반면, ‘ㄴ’은 화자가 명제에 대한 인식이나 지각이 확실성을 가진 경우이다. (24가)는 명제의 주체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의심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화자가 인식한 것이며, (24나)는 명제의 주체가 그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의심스러워한다고 화자가 인식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고 하는’과 환원적 ‘다는’은 화자가 제삼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청자에게 중립적 관점에서 전달하는 ‘간접성’의 의미를 가지는 반면, 비환원적 ‘다는’은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인식 태도가 ‘개연성’을 나타내며, ‘ㄴ’은 ‘확실성’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6) 심재기(1979)는 관형사형 어미 ‘ㄴ’과 ‘ㄹ’이 동명사형 어미에서 관형사형 어미로 기능 분화된 것으로, ‘ㄴ’은 [+결정성], ‘ㄹ’은 [-결정성]을 표현하는 인식 양상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의미차이는 상적 속성인 완료상이나 비완료상과도 표리의 관계를 가진다고 보았다. 한편 안명철(1990, p. 133)은 ‘하고 프다, 할단다’ 등에서 ‘다’를 선어말어미로 처리하고,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보이는 서법적인 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6. 비환원적 융합형 ‘-다는’의 문법화 과정과 문법범주

통사론적 구성 ‘-다고 하는’과 형태론적 구성 ‘-다는’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사·의미론적으로 다른 현상을 보였다. 두 유형은 통사적으로 선어말어미나 인칭과의 결합에서 다른 현상을 보였고, 접속문의 작용역 범위도 다르게 나타났다. 의미적으로 ‘-다고 하는’은 간접성, ‘-다는’은 개연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다는’의 문법화 과정을 아래와 같이 상정할 수 있다.

(25) -다고 하는> -다는₁> -다는₂

‘-다고 하는’은 통사론적 구성이며, ‘고 하’ 탈락된 ‘-다는₁’이 하나의 문법단위로 재분석되어 ‘-다는₂’가 된 것이다. ‘-다는₁’에서 ‘-다는₂’로의 문법화를 입증한 것이 보문 명사와의 상관성과 통사·의미적 차이점이다. ‘-다는₁’은 언어수행성 명사와 결합할 수 있지만, ‘-다는₂’는 비언어수행성 명사와 결합한다.

사실 ‘-다는₂’와 같은 문법화 과정은 세계 여러 언어에서 발견된다. 다음은 영어에서 문법화한 어휘들이다.

- (26) 가. be-계: behind, below, because, become, before
 나. a-계: about, above, afore, aloft
 다. wanna(want to), gonna(going to)¹⁷⁾

(26)의 예들은 문법화의 기제 중 재분석이 사용된 것으로, 두 문법범주가 재분석에 의해 하나의 문법범주가 된 경우이다. 이 중에서 (26다)는 음운축약과 재분석이 모두 적용된 것으로 영어 화자들은 이것들을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다는₂’를 국어 화자들이 하나의 문법형태소로 인식하는 것과 같다.

‘-다는₂’를 하나의 문법형태소로 인정한다면 어느 문법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일단 형태상으로 용언의 어간에 후행하므로 어미가 되며, 후행명사를 수식하는 통사적 기능하므로 이와 유사한 어미로는 관형사형 어미가 있다.¹⁸⁾ 물론 ‘-다는₂’가 관형사형 어미가 된다면, 관형사형 어미 체계에 대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¹⁹⁾ 기존의 관형사형 어미 설정도 여전히 혼란스러운데, 문법화한 ‘-다는₂’까지 관형사형 어미로 설정한다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러나 ‘-다는₂’는 더 이상 통

17) 이성하(1998, pp. 240-45) 참조.

18) ‘-다는’이 관형사형 어미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문법화의 일반적 현상과 일맥상통한다. 문법화 단계에 대한 논의는 Givon(2001, p. 367)에서 ‘주동사>조동사>접어>접사> 굴절어미’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19) 관형사형 어미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남기심(1974), 서정수(1979), 이홍식(1990, 1999)은 ‘은, 을, 는, 던’, 이익섭·임홍빈(1983), 임홍빈·장소원(1995)은 ‘은, 는, 박병수(1974), 양동휘(1978)은 ‘은, 는, 을’이다.

사론적 구성도 아니며 하나의 어미로 문법화하였고, 후행명사를 수식하는 통사적 기능을 가지므로 관형사형 어미이다.

7. 결 론

지금까지 국어의 인용 구문 ‘다고 하는’과 ‘다는’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통시적으로 ‘다는’은 ‘다고 하는’에서 인용표지 ‘고’와 형식동사 ‘하’가 탈락하여 문법화한 것이며, 공시적으로는 ‘다고 하는’은 언어수행성을 가지는 보문명사와 결합하고, 비환원적 융합형 ‘다는’은 언어수행성을 가지지 않는 보문명사와 결합함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다고 하는’은 명제에 대한 간접성의 의미를 가지지만, 하나의 형태론적 단위인 ‘다는’은 개연성의 의미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문법화한 ‘다는’은 독립된 통사 단위인 관형사형 어미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관형사형 어미는 사상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기존의 관형사형 어미와 ‘다는’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필요하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 강범모. (1983). 한국어의 보문의 구조와 의미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재일. (1998). 한국어 인용 구문 유형의 변화와 인용표지의 생성. 언어학 22, 59-79.
 김선호. (2002). 현대 국어의 관형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수태. (1999). 인용월 연구. 부산대학교 출판부.
 김홍범. (1987). ‘다면서, -다고, -다니’의 구조와 의미. 말 12, 71-91.
 남기심. (1973). 국어 완형보문법 연구. 탑출판사. <국어문법의 탐구1>(1996) 재록. 133-254.
 남기심. (1996). 국어문법의 탐구1. 태학사.
 남기심·고영근. (1987).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박나리. (1998). 비환원적 단다 유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만규. (1993). 이른바 보문자 ‘-고’의 통사적 지위 재분석. 관대논문집 21. 관동대학교.
 박병수. (1974). 한국어 명사 보문구조의 분석. 문법연구 1.
 박재연. (2000). ‘다고’류 어미에 대한 화용론적 접근. 애산학보 14.
 서정수. (1979). ‘(있)던’에 대하여. 서병국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남기심·고영근(공편)(1983) 재록.
 석주연. (2002). 중세국어의 인용문과 선어말어미 ‘오’. 형태론 4(1), 1-10.
 송진오. (1978). Noun Complementation in Korean. Korean Linguistics 1.
 신선경. (1986). 인용문의 구조와 유형 분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재기. (1979). 관형화의 의미기능. 어학연구 15(2), 109-21.
- 안경화. (1995). 한국어 인용 구문의 연구.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 안명철. (1990). 국어의 융합 현상. 국어국문학 103. 국어국문학회, 121-37.
- 안병희. (1967). 한국어발달사 중 (문법사). 한국문화사대계 5(상).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양동휘. (1976). On Complementizers in Korean. 언어 1(2), 18-46.
- 양인석. (1972). Korean Syntax: Case Markers, Delimiters, complementation, and Relativization. 백함출판사.
- 이성하. (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 이승재. (1992). 융합형의 형태분석과 형태의 화석. 주시경학보 10, 59-79.
- 이익섭·임홍빈. (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지양. (1985). 융합형 '래도'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10, 309-32.
- 이지양. (1996). 국어의 융합현상. 국어학총서22. 국어학회.
- 이지양. (2003). 문법화의 이론과 국어의 문법화. 정신문화연구 26(3), 211-39.
- 이필영. (1993/1995a).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탑출판사.
- 이필영. (1995b). 통사적 구성에서의 축약에 대하여. 국어학 26, 1-32.
- 이현희. (1986). 중세국어 내적 화법의 성격. 한신대 논문집 3. 한신대학교.
- 이현희. (1994). 19세기 국어의 문법사적 고찰. 한국문화 15, 57-81.
- 이홍식. (1990). 현대국어 관형절 연구. 국어연구 98.
- 이홍식. (1999). 명사구 보문. 국어학 33, 364-98.
- 임홍빈·장소원. (1995). 국어문법론1.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장경희. (1987). 국어의 완형보문의 해석. 국어학 16, 487-519.
- Givon, T. (2001). *Syntax*.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Lyons, J. (1977). *Semantics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ons, J. (1995). *Linguistic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 선 효

151-832

서울시 관악구 봉천 11동 1632-19, B04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 sun4591@hanmail.net

접수일자 : 2003. 12. 1

수정본 접수 : 2004. 2. 17

게재결정 : 2004. 2. 21